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7층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2630-7085

‘여성차별·여성비하’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없다!

12일 선거유세 첫날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형편없는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동행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칭했다. 김 후보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스코리아 대회’가 여성의 성 상품화와 선정성 등으로 비판받으며 지상파 방송에서 퇴출된 게 벌써 20년도 훌쩍 넘는 일이다. 외모지상주의, 성상품화, 여성비하 등 각종 반 인권적 문제로 외면 받고 있는 ‘미인대회’가 2025년 대선 선거유세장에 김 후보의 입으로부터 다시 등장했다. 역사책에 박제되어 있던 ‘계엄’과 ‘내란’을 다시 불러온 정당의 대선 후보답다.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선 국회의원이다. 김문수 후보에게 배현진 의원은 함께 국정을 논하는 동료 정치인인가, 아니면 외모로 평가하는 ‘대상’일 뿐인가.

김문수 후보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언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0년 11월 서울대 강연에서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어...쭉쭉빵빵이야”, 2011년 6월 최고경영자조찬회의에서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18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하고 씻지도 않고, 아니잖느냐,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는다”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을 줄줄이 내뱉은 바 있다.

이렇게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은 국가의 수장이 반드시 체화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 가치이자 소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없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들에게 사과하라.

2025년 5월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본부장 이수진 · 백혜련)